

## 나르케(vapκη, narke)

어두운 골목. 길거리는 가게의 조명들로 빛나고 있다. 사람들로 꽉 찬 골목은 활기가 넘쳤다. 자신의 물건을 홍보하는 사람들, 흥정을 하는 사람들, 자전거로 배달을 하는 사람들, 짐을 옮기는 사람들, 그저 즐기기 위해 있는 사람들. 각자가 자기 일을 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그러나 여기 대체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 한 여자가 있다. 얼굴에는 어떤 표정의 변화도 없었다. 생기 넘치는 사람들이 전혀 보이지도 않는 듯 멍한 표정으로 정처 없이 거리를 떠돌고 있다. 그녀의 이름은 고결. 고결의 짧은 머리와 큰키로 언뜻 보면 예쁜장한 소년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죽은 눈을 한 소년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고결을 최근 들어 이렇게 무의미하게 떠도는 일이 많아졌다. 무언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이 공허한 기분이 어떻게 해도 채워지지 않았다.

큰 골목을 따라 사람들 사이로 스쳐지나가던 중 이상한 느낌이 든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옛친구를 다시 만난듯한 반가움. 그 기운이 오는 곳으로 고개를 돌리자 골목안에 있는 또다른 작은 골목으로 시선이 도착했다. 골목 끝에는 기다란 형상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러나 거기에서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문이다. 근데 이 문의 양 옆, 심지에 뒤에도 벽이 없었다. 문은 도로 한가운데의 교통경찰관처럼 골목 정중앙에 고고히 서있었다. 오래된 왁스 싹 같은 붉은색을 띠는 이 문에는 한 문구가 적혀있었다.

‘당신에게 부족한 것이 채워지길 원한다면 이 문을 여십시오.’

고결은 미심쩍은 표정으로 몸을 옆으로 기울여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본다.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도 고결은 뭐 열어서 손해 될 건 없지라는 생각으로 문을 열어 보기 위해 손을 뻗는다. 그러나 손이 문고리에 닿기도 전에 문이 저절로 열린다. 그러자 문 너머로 한 공간이 보인다. 골목이 아니다. 약간 비싼 남자 향수 냄새가 나는 어둡고 선선한 공간이 이어져 있었다. 문과 마찬가지로 오래됐지만 허름하다기보다는 어딘가 고풍스럽다는 느낌이었다. 고결은 오른발을 천천히 앞으로 뻗는다... 그리고..

그대로 오른발을 축으로 획 돌아버린다. 관심이 없었다. 애초에 정체도 모르고 수상한 문을 땀금 들어가는 사람이 이상한거다. 그렇게 뒤를 돌아 골목을 나라려는 고결의 발걸음이 멈춘다. 자신의 앞에 다시 문이 나타난 것이다. 뒤를 돌아보니 방금 문이 있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고결을 다시 앞으로 걸어가 문을 스치고 지나간다. 마치 문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문이 말하는 듯 해 보였다. 그러나 고결에게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오히려 더욱 더 문이 수상하게 느껴졌고 드러가고 문에 대한 호기심은 금세 적대감으로 변했다. 문을 무시한채 다시 걸어가던 고결의 앞은 또 다시 문이 막아선다. 골목에서 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판단한 고결은 잠시 멈췄다가 뒤를 돌아 달려가기 시작한다. 골목으로 들어가 다른 나가는 곳을 찾아야겠다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문은 계속해서 고결의 앞에 나타나 길을 막아섰고 고결은 좌우로 문을 피해가며 전진했다. 더이상 고결 앞에 문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하게 여겨 뒤를 돌아 보며 달리던 고결의 앞에 활짝 열린 문이 나타났다. 미처 문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한 고결은 그대로 문 속으로 들어가버리고 만다. 문은 고결을 삼키고 굳게 닫힌다.

문 속으로 들어가버린 고결은 어둠에 적응하며 주위를 둘러본다. 이상하다. 분명 고결은 이곳이 처음이 아닌 듯한,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자주 맡아본 냄새인 것일까? 시야가 적응 되는데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러자 모퉁이 너머로 희미한 빛이 보였다. 모퉁이를 돌아 탁 트인 공간이 펼쳐졌다. 그 안에는 수많은 가면을 쓴 사람들이 서 있었다. 가면무도회라도 하는 것일까? 그러나 무언가가 이상했다. 이들은 춤을 추고 있지 않았다. 춤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정자세로 가만히 서 있었다. 손목에 태그를 달고 있는 이들은 마치 마네킹 같았다. 그러나 아주 미세하게 숨을 쉬고 움직이고 있었다. 고결은 가장 앞에 있는 가면 쓴 사람에게 일정한 속도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가면에 거의 코가 닿을 정도의 거리까지 다가가 가면을 천천히 살펴보았다. 그래도 가면을 쓴 사람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 가면에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가면 위에 문양을 따라 시선이 이동했다. 그 시선의 끝에 있는 뒤에 위치한 또 다른 가면을 보니 전혀 다른 모양이었다. 그렇게 주위를 둘러보니 같은 가면은 단 하나도 없었다.

고결은 가면을 구경하며 점점 깊이 들어갔다. 대나무 숲같은 가면 사이로 지나가 어느새 방의 끝까지 다다랐다. 그 끝에는 벽이 하나 있었다. 벽 앞에는 또 사람이 하나 서 있었고 그 벽의 중앙에는 문이 있었다. 처음 들어왔던 문보다는 좀더 적대적인,空空 닫혀있는 듯한 문이었다. 그 문 또한 문구 하나가 적혀있었다.

‘For νάρκη.’

**Νάρκη.** 처음 들어보는 단어지만 왠지 모르게 친근한 느낌이었다. 고결이 문을 열어보려는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고결을 팔을 잡아 멈춘다.

“그 문을 여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고결씨”

문 옆에 서 있던 사람이다. 다른 가면을 쓴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건 움직임이나 싶었다. 차분한 물투로 화내지도 친절하지도 않은 듯한 말투로 은은히 말했다.

“이 문 뒤에는 뭐가 있죠?”

고결은 잡힌 팔을 내리면서 그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일단 특별한 손님을 위한 특별한 페르소나라 해두죠.”

“페르소나?”

고결이 자신의 팔을 잡은 사람의 얼굴을 올려다 보며 말했다. 그리고는 약간 흥칫한다.

“네. 저희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 또 다른 얼굴, 페르소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페르소나를 바꾸면 사는 방식또한 같이 바뀌게 되죠. 물론 실제 얼굴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친절히 설명했다. 설명을 듣자 고결은 흥미가 조금 생기기 시작했다.

“페르소나를 갈아끼면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될수있다... 그말인가요?”

“좀 더 깊이감이 있지만, 간단히 생각하면 그렇다고 볼수 있죠.”

“그러면 제 공허함을 해결해주는 페르소나도 있나요?”

“흠... 워낙 광범위한 말이라 정확히 하나를 추천해 드리는 어렵군요... 일단 가장 인기있는 페르소나를 체험해 보실래요?”

“뭐.. 좋아요. 그런데 당신은 누군가요?”

“저는 이 무대의 관리인... 페르소나 판매원이라고 해두죠. 그럼 이쪽으로.”

그의 꺼림칙한 얼굴은 뒤로 하고 페르소나 앞으로 다가갔다. 처음으로 봤던 ‘괘락’ 페르소나의 가면을 벗기자 가면을 쓰고 있던 사람이 사라졌다.

“한번 써보시죠.”

고결이 가면을 쓰자 고결 또한 어딘가로 사라졌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판매원은 고결을 떠나보낸 후 천천히 걸음을 떼어 페르소나들은 정비하기 시작한다. 그들의 비뚤어진 가면들을 바로 세워주고 먼지떨이로 어깨를 툭툭 털어 준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 페르소나의 구두를 닦아주는 도중 누군가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려온다.

“예상보다 빠르네요.”

고결이다. 괘락을 즐기고 온 걸까? 가면을 쓰고 나갔을 때와는 완전 다른 모습이었다. 완전히 헝클어진 머리에 웃도 단정하지 않았다. 고결의 표정은 즐겼다는 단어와 정반대로 보였다. 완전한 무표정인 고결은 평범한 걸음 거리로 판매원에게 다가온다.

“괘락의 페르소나는 어땠나요 고결님? 명예, 사치의 페르소나와 함께 가장 인기 있는 페르소나입니다. 부족함이 조금은 채워지셨나요?”

“전혀.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 아 이게 사는 거구나 싶었지. 근데 점점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었고 오히려 모든 것에 감흥이 없어져 버렸어. 좀 더 강한 걸 줘봐.”

자극적인 내용과 다르게 고결은 담담히 말했다.

“저희는 페르소나를 판매하는 거지 마약 판매원이 아니랍니다. 고결님. 그러면...”

“네 입으로 내 이름을 부르지 말아 줄래? 뭔가 기분이 이상하니까.”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페르소나들을 소개해 드리죠. 따라오시죠.”

판매원은 약간 피식하면서 고결의 어리광을 들어주었다. 판매원은 침착한 태도로 설명을 시작한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표면으로 드러내는 자아,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죠. 저희 페르소나 샵에서는 이런 표면 자아를 완전히 바꾸게 해주는 가면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왜 쾌락을 느끼지 못한 건데?”

“어디까지나 바뀌는 것은 표면 자아. 진정한 자아는 그대로입니다. 자신의 자아에 알맞은 페르소나를 찾는다면 고결님... 아니 고객님의 부족함이 해소될 수도 있겠네요.”

“신데렐라의 구두 같이?”

판매원은 긍정의 고개를 끄덕인다. 이어서 걸어가면서 설명을 이어간다.

“여기에 없는 페르소나는 존재하지 않으니 고객님의 충족시켜줄 페르소나도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고결은 페르소나를 하나하나 살펴본다. 그러자 역시 판매원이 못 열게 막았던 문이 눈에 들어온다. 그러자 판매원이 바로 이를 눈치채고 고결에게 말한다.

“때로는 열어서는 안 되는 문도 존재하는 법이죠. 그러면 또 하나의 페르소나를 추천해 드리는 건 어떨까요? 따라오시죠.”

지금의 고결과는 대조되는 단정한 느낌의 페르소나였다.

“정복의 페르소나입니다. 저만의 느낌일 수도 있지만 고객님과 잘 어울릴 거란 느낌이 들군요.”

“좋아... 근데 페르소나는 판다고 했는데 돈은 어떻게 받는 거야?”

“저희는 돈으로 가격을 책정하지 않습니다. 페르소나를 사면 저희도 고객님에게 일부를 가져가죠. 가면을 쓰는 것만으로도 구매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결은 어딘가 꺼림칙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자신의 빈 곳이 채워진다면 영혼이라도 팔 모양이었다. 고결은 그대로 가면을 쓰고 다시 사라졌다. 그리고 다시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와 함께 고결은 돌아온다. 지난번과는 다르게 말끔해진 모습이다.

“다음 페르소나도 보여줘.”

역시 모습만 깔끔했지 내면은 그대로인 모양이다. 판매원은 기꺼이 페르소나를 소개해준다.

“이 페르소나는....”

몇 번이고 이 행위가 반복됐을까. 고결은 수많은 페르소나를 거쳐갔다. 사치, 무채색, 비비드, 군것질, 식물 심지어 우주인 페르소나까지 고결은 페르소나 샵에 있던 모든 페르소나를 거쳐 갔다. 군것질 페르소나를 살 때였다. 고결은 다시 한번 점원에게 묻는다.

“저 문 뒤에 정확히 어떤 페르소나가 있는 거야? 그냥 보기라도 하면 안 돼?”

“페르소나..라고 해야 할까요? 엄청난 고통이 동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되든 열지는 알아주시죠.”

그렇게 말해봤자 오히려 궁금해질 뿐이었다. 그래도 다른 페르소나들도 많이 남아 있으니 고결은 양전히 판매원의 말을 따라 군것질 페르소나 가면을 썼다. 그러나 페르소나들은 무한하지 않았다. 처음 페르소나들로 가득 차있었던 공간은 점점 비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고결의 부족함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다. 마지막 페르소나까지 거쳐도 그 가게 안에 고결의 발에 딱 맞는 구두는 존재하지 않았다.

“방금 구매하신 페르소나가 마지막입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의 도움을 드릴 수는 없었던 모양이군요.”

“그래... 애초에 기대도 안 했어.”  
고결은 터벅터벅 발길을 돌려 떠났다.

“지금까지 페르소나 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떠나가는 고결의 뒤를 향해 판매원이 인사를 한다. 그러다 고결은 무언가가 떠올랐는지 다시 걸음을 멈춰 섰다.

“페르소나라면 하나 남아 있잖아.”

그리고 문을 가리킨다.

“안됩니다. 누누이 말했듯이...”

“상관없어. 이대로 떠나면 오히려 여길 찾기 전보다도 못한 삶만 기다리고 있다고. 무엇이든 좋아. 여기서 더 나빠질 건 없으니까.”

“...”

판매원은 단념했다는 듯 가만히 서있다. 고결은 그대로 판매원을 무시하고 문을 향해 거침 없이 걸어간다. 그리고 문고리를 돌린다. 문 안에는 하나의 사람이 서있었다. 페르소나일까? 아니다 어딘가 다르다. 이 사람은 가면을 쓰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머리가 있을 자리에 머리가 없었다. 본래 머리가 있을 위치에 여러 송이의 노란 꽃이 달려있었다. 수선화였다. 그리고 수선화의 이름이 보였다. 사랑. 고결은 매혹된 듯이 천천히 수선화의 얼굴을 향해 손은 뻗는다. 손가락 끝이 점점 꽃잎에 다가간다. 그러자 판매원이 고결의 뒤를 따라 방에 들어와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한다.

“이 꽃의 이름은 사랑.”

손을 뺀 고결의 손이 잠시 멈칫한다. 그리고 손을 천천히 내리며 꽃을 감상하며 말한다.

“사랑... 꽃이 너무나 아름다워...”

“저도 이 꽃을 좋아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이 딱이죠. 이 페르소나를 구입하면 사랑을, 자신이 가장 원하던 상대와 누구보다 열렬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판매원이 설명을 계속한다. 고결은 판매원의 말을 끊고 사탕가게에 들어간 어린 아이처럼 꽃을 가지기를 못 기다리겠다는 모습처럼 신나게 말을 한다. 그러나 판매원의 설명이 계속 되자 고결의 표정은 서서히 굳는다. 좀 전의 매혹 된 모습은 사라지고 고뇌에 빠진듯 판매원의 얼굴을 본다.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짓는 고결. 드디어 전부다 이해했다는 표정을 짓는다. 마침내 결단을 내린듯 고결은 말한다.

“그래도 상관 없어. 가질래.”

“저는 충분한 경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일들은 순전히 고결님의 책임임을 미리 고지드립니다. 당신이 행복해 질지 또는 더더욱 불행해 질지는 이미 저의 손을 떠나는 문제임을, 그리고 사랑을 나누더라도..”

고결은 판매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꽃을 낚아챈다. 그러자

고결은 누군가와 데이트를 하고 있다. 지금껏 보지 못한 고결의 환한 웃음. 그 냉랭하던 고결에게 이런 웃음을 볼 거라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고결은 자신의 옆을 보면서 길거리를 걷고, 식사를 하며, 잠을 잤다. 고결의 부족함이 채워진 것이다. 그녀에게 부족하던 것은 사랑.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도,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도 카페 거리를 걸어가는 고결의 모습도 전부 어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다. 고결이 카페 앞 창가를 걸어가며 상대방을 향해 고개를 돌린다. 그리고 환한 표정을 짓는다. 고결의 눈에 비춰진 그의 모습은 너무나 완벽했다. 큰키에 짧은 머리. 얼핏 보면 아름다운 소년같은 모습. 마치 고결 같았다.

아니.

고결이었다. 고결의 옆에는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그녀가 바라보던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 거울과 창문에 비친 본인의 모습을 보고 있던 것이다. 공원에서, 침대에서, 카페에서도 고결은 홀로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비로서 부족함이 해결됐다는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다.

.  
. .  
. .  
. .  
. .

고결이 꽃을 가지기 직전 판매원이 말했었다.

“저도 이 꽃을 좋아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이 딱이죠. 이 페르소나를 구입하면 사랑을, 자신이 가장 원하던 상대와 누구보다 열렬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 잘생긴 남자랑 데이트라도 하는 걸까? 영화 같은 운명의 상대? 아직까지 살면서 아무도 성에 안차 사랑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데 빨리 가지고 싶어!”

“사랑을 나누는 대상이 누가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단순히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 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 페르소나 샵의 모든 물건처럼 대가가 있습니다. 페르소나의 대가는 본심. 페르소나가 발현되면서 이면으로 사라지는 본심을 대가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원은 꽃을 가리키며 말을 이어 나간다.

“그리고 이 꽃은 그 본심의 결정체죠. 즉 이 꽃을 사면 다시는 페르소나를 구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페르소나를 쓰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가 항상 표출된다는 것. 더 이상 페르소나 뒤에 숨어서 살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을 정면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좀 전의 매혹된 모습은 사라지고 고뇌에 빠진 듯 판매원의 얼굴을 본다.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짓는 고결. 판매원의 얼굴을 볼 때마다 들었던 위화감의 정체. 판매원은 고결 자신이었다. 분명 복장도 태도도 말투도 다르지만 영락없이 고결의 얼굴이었다. 드디어 전부다 이해했다는 표정을 짓는다. 마침내 결단을 내린 듯 고결은 말한다.

“그래도 상관 없어. 가질래.”

고결은 다른 어떤 것보다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나르시시스트였다.

나르케: 잠/ 무감각 나르키소스의 어원. 나르키소스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사랑에 빠져 자신을 만지려다가 연못에 빠져 죽게 된다. 자기애를 뜻하는 나르시시즘의 어원.